

2019년 5월 23일, 서귀포시 영천동(토평동) 토평초등학교, 오창순 조사.

김창옥(남, 1937년생, 서귀포시 상호동)

-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생, 1961년부터 현재까지 상호동(법호촌)에서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날씨가 흐린 날에 귀신을 보았는데 소가 있어서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.

[제보자] 헛게 이제 영 보며는 발은 안 보이곡 저 지금 한라성 옆에 동산에 그런 게 자꾸 나그네 그 날 궂어가며는 이제 나그네 저디 돌아가신 고△△ 할머니엔 할망보며는 그런 말했거든. 야 그저 날 궂어 헤 가난 도체비덜 나왔저, 헛것 저 오랑 저 구경허라. 구경허라. 허멍 헨 보며는 불이 활 열 개로 텃당 스무 개로 텃당 허멍 그냥 헤그네 허는 건 봐 나곡.

또 이제 동네 사름덜도 옛날 이제 저 그 보당으네 이제 걸령으네 그저 헛게비 앞이 걸령으네 소 마차허는 그 양반은 죽어불엇는디 서귀포 간 오는디 지금 인정오름 ○○양로원 그 앞에 오니까 이○○이엔 헨 사름은 한짝 다리가 절군데

“형님, 담뱃불 좀 빌립서.”

허멍 허난

“뎃잇, 이 사람 담뱃불은 이 밤이 먼 말인고.”

허난.

쉐가 쨍허민 쉐는 옛날부터 물은 그자 실개 엇인 거난 막 도망 뎡기곡, 쉐는 썩썩허멍 이겨나갓덴 허는디. 뎃 번을 경헨. 거 이상하다 헨 집이 오나네 이○○이네 집이 강 보니깐 이○○인 자고 잇거든. 하하 게난 아이 이거 내가 헛걸 봤구나 헤네 그때 이제 나도 뭐.

• 핵심어: 헛게(귀신), 쉐(소), 물(말), 도체비(도깨비)